

# 한국어 후치사와 중국어 개사의 단어적 성격에 대하여

고창수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장려금 지원과제임. 또한 이 논문은 한국 국어교육학회 제 1차 국제학술대회(몽골 울란바타르, 2012.6.26~27) 발표문을 수정한 것임. 국어교육학회의 본 취의에 부합하지 않은 이 발표를 허락한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 I. 서론
- II. 한국어의 후치사
- III. 중국어의 개사
- IV. 한국어의 후치사와 중국어 개사의 관련성
- V. 결론

## I. 서론

한국어는 거의 모든 통사적 요소들이 단어에 후치되어 나타난다. 동사의 활용어미가 그러하고, 명사의 조사가 그러하다. 그중에서 조사는 학교문법에서 주로 단어로 취급되는 것인데, 그 통사적 기능을 볼 때 단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단 조사는 문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물론 의존명사도 관형어의 도움을 받아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이것은 성분어와 성분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단어로 인정될 수 있다.<sup>1</sup>

조사는 또한 성격상 격조사와 보조사로 대별되며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단어군으로 종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점은 조사의 서열적 기능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만약 조사가 단어라면 단어가 가지는 성격은 명사와 거의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즉 ‘명사+조사’의 구는 조사구가 되어야 하며, 조사가 가지는 성격에 의해 명사에 어떤 통사적 표시를

---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창수(2012)를 전반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언어에서 접사들은 단어에 후치되어 자신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한국어의 의존명사와 같이 기능적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단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전치사가 이에 해당한다. 영어의 전치사는 ‘전치사+명사’의 전치사구를 이루며, 후행하는 명사에 격을 배당한다. 즉, 전치사는 동사가 가지는 역할을 수행한다.<sup>2</sup>

중국어에도 개사(co-verb)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 개사구를 이루며 후행하는 명사를 부사어로 만드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어는 고립어기 때문에 영어의 전치사와 같이 후행하는 명사에 어떤 통사적 표시를 할 수 없다. 즉, 개사의 단어적 성격이 영어의 전치사와 같이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다.<sup>3</sup> 그런 점에서 중국어의 개사는 한국어의 부사격에 참여하는 조사와 비슷한 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후치사와 중국어의 개사가 어떤 통사적 공통성과 상이성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양어 사이의 역사적 발달과 함께 중국어와 한국어가 유형론적·계통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

## II. 한국어의 후치사

한국어에서 후치사는 곧 조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하위분류 중 한 부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서정수(1996: 881)에서는 후치사를 부사격조사와 같

---

2 이런 이유로 X이론과 품사의 자질 분류를 제안한 Chomsky(1970)는 전치사를 [-N, -V]의 자질을 부여하고 동사와 같이 격 표시자로 인정한다.

3 그러나 일부 개사는 단독으로 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조사보다는 단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sup>4</sup> 즉, 부사격이라는 격의 기능이 주격과 목적격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부사격은 확실히 주격과 목적격과는 서열과 기능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그에 의하면 후치사는 후치사구를 만들어 명사구를 부사어로 만드는 기능, 즉 품사 전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서정수, 1996: 882).

임동훈(2004: 119)에서는 격조사에 대별되는 특수조사를 설정하고 그 하위에 다시 후치사와 첨사를 나누고 있다. 이에 따르면 후치사는 ‘만’, ‘까’, ‘지’, ‘다가’, ‘밖에’, ‘부터’, ‘조차’, ‘처럼’, ‘같이’, ‘만큼’, ‘뿐’, ‘대로’ 등을 들고 있으며, 이들은 기원적으로 보어를 취하는 명사나 동사가 문법화한 것으로 선행 명사의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미격조사에 후행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후치사는 실사의 형태에서 발전하여 격의 일반성, 다시 말해서 구조상의 특정 위치를 점하지 않는 조사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창수(2007: 128)에서는 조사를 그 서열성에 입각하여 내적 서열을 가지는 조사와 외적 서열을 가지는 조사로 대별하였다. 그중 후치사는 내적 서열을 가지면서 조사의 고유 의미가 현저한 것으로 보았는데, 해당 목록은 임동훈(2004)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즉, 한국어의 후치사는 격조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sup>5</sup> 이제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를 보아도 한국어의 후치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목록과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용어의 사용이나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논의에서는 중국어의 개사와의 관계를 따지기 위하여 개사에 대응하는 용어로 후치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중국어의 개사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 왜 중국어의 개사에 대응하는 조사 부류로 후치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겠다. 중국어의 개사는 주로 동작의 방향이나 처소를 나타내는

4 여기에는 ‘처럼’, ‘만큼’, ‘만치’, ‘보다’와 같이 격으로 보기 힘든 조사들도 아우르고 있다.

5 고창수(2007)에서는 내적 서열을 가지는 ‘에’, ‘로’, ‘와’는 격조사로 분류하고 있다.

것으로 한국어의 격조사로 분류되는 ‘에’, ‘로’와 대응되는 경향이 많지만, 뜻에 따라 ‘조차’, ‘부터’, ‘까지’ 등의 보조사와도 대응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조사 하위분류와 비교할 때 격조사와 보조사의 기능을 두루 수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엄밀하게 말해 중국어의 개사는 격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전치사와 같이 후행 명사구를 지배하면서 특정한 장소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따라서 중국어의 개사를 한국어와 대응하여 일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모호하더라도 후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임동훈(2004)에서는 한국어의 격조사를 문법격과 의미격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은 김원경(2000: 108)에 제시한 형태론적 격의 목록과 일치한다. 김원경(2000)에서는 이들을 다시 구조격과 본유격으로 나누었으며, 구조격은 문법격과 본유격은 의미격의 목록과도 같다. 즉, 두 연구자가 바라보는 격 표시자에 대한 인식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단지 김원경의 구조격이 마치 구조적 형상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론적 배경이 되는 자질연산문법(FCG)에서는 원리적으로 구조적 형상은 하나의 정보 집합 체이거나 설명적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격조사의 분류는 두 연구자의 목록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다만 임동훈(2004)에서는 한국어의 격조사가 단어 표시 체계가 아니라 구 표시 체계라고 하여 격조사 독자적인 통사 단위임을 보여 준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형태론적 관찰과 통사론적 관찰을 혼동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어의 격조사도 형태론적 관점에서는 선행하는 명사에 인접하여 부착되지만 통사론적으로는 명사구에 부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통사론을 전개하

6 김원경(2009: 65)에서는 본유격을 모두 부사격으로 보기 때문에 임동훈의 의미격은 부사격으로 일관하기로 한다. 문법격과 의미격, 구조격과 본유격은 격의 성질에 의한 중간적 분류 명칭이므로 이들의 각 형태에 대한 것은 주격, 목적격, 속격, 부사격과 같은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부사격에 해당하는 형태소 ‘에’, ‘로’, ‘와’도 각각 처소격, 도주격, 공동격과 같은 명칭으로 세분하여 호칭할 수 있다.

기 위한 하나의 설명적 방법에 불과하다. 영어의 경우 굴절적인 속성으로 대명사의 경우 단어가 격 표시자를 내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명사의 경우는 격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굴절적인 요소가 통사적으로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힘든 점이 있을 뿐이다.

- (1) ㄱ. He looks (a pretty girl) in the garden.  
 ㄴ. He looks (her, a pretty girl) in the garden.  
 ㄷ. 그는 정원에서 (예쁜 소녀)를 보았다.

(1ㄱ)에서 목적격은 괄호 안의 명사구 전체에 배당되는 것이지, 단어 ‘girl’에만 배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1ㄴ)과 같이 대명사와 동격인 구로 나타내 보일 때 자명하다. 마찬가지로 (1ㄷ)에서도 목적격이 배당되는 것은 ‘예쁜 소녀’ 전체이다. 여기에 목적격표지 ‘를’은 물론 통사적으로는 명사구에 부착되는 것이지만, 형태적으로는 ‘소녀’에 붙는 것이다. 왜냐하면 ‘를’이 형태론적으로 ‘예쁘다’라는 형용사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어와 같이 굴절 체계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언어는 격표시가 명사구의 내부 단어들에게 확산되어 나타난다. 이는 격이 통사적으로는 명사구에 표시되면 단어의 형태 구성은 언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 Он ви́дел моего маленького сына. (그는 나의 작은 아들을 보았다.)

(2)에서 밑줄 친 목적격 명사구는 주격으로는 ‘мой маленький сын’의 형태를 가진다. 즉, 러시아어는 하나의 명사구가 목적격 표시가 되면 확장된 수식어가 모두 목적격 일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격 표시의 통사적 환경과 형태적 환경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통사

적으로 모든 격은 구에 대응하여 표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격이 통사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단어로 인지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어의 후치사는 선행 명사구에 부착됨으로써 명사구의 성분을 부사어로 만드는 특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3) ㄱ. 철수는 학교에 간다.

ㄴ. 철수는 학교를 간다.

(3)의 ‘학교’는 동사 ‘가다’에 의해 동일하게 생성된 것이므로 두 성분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목적격표지 ‘를’과 부사격표지 ‘에’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통사론적으로는 두 문장의 의미도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3ㄱ)과 (3ㄴ)의 차이를, 통사 구조를 달리하여 보인다 하여도, 문법적 설명의 실익을 찾기란 힘들 것이다. 따라서 (3ㄱ)의 ‘에’는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에’가 가진 고유 의미가 의미론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4) 철수는 나무에 물을 주었다.

(4)의 예문에서 ‘에’는 확실히 부사어로서 기능한다. 이 경우 부사어와 목적어는 통사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가 선행 명사구를 부사어로 만드는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이른바 본유격에 해당하는 ‘에’, ‘로’, ‘와’와 같은 형태소들은 부사격으로 대별되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각의 원천적 의미 기능에 따라 처소격, 도구격, 공동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어의 부사격들은 대체로 목적어와 구분되는 격들로 이들은 격 배



당자가 아니라 격 표시자임을 유의해 보자.<sup>7</sup> 이는 부사격 표시자들이 단어가 아닌 접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어의 전치사는 부사어를 이루는 단어이지만 이들은 격 표시자가 아니라 격 배당자이다. 이 점에서 영어의 전치사는 접사가 아닌 단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어에서는 부사격조사를 제외하고 앞에서 언급한 후치사들은 격 표시자도 아니고 격 배당자도 될 수 없다.

- (5) ㄱ. 철수만(이) 학교에 간다.
- ㄴ. 철수는 순희만(을) 만난다.
- ㄷ. 철수는 순희에게만 편지를 쓴다.

(5)의 예를 보듯이 후치사 ‘만’은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 위치에 모두 분포할 수 있다. 단지 (5ㄷ)의 예에서 보듯이, 부사격에 위치할 때는 부사격을 생략할 수 없다. 즉, “철수는 순희만 편지를 쓴다.”는 비문이 된다는 뜻이다. ‘만’과 부사격 ‘에’, ‘로’는 위치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 (6) ㄱ. 철수는 아침에만 일을 한다.
- ㄴ. 철수는 일주일 만에 일을 끝냈다.
- ㄷ. 철수는 빵으로만 일주일을 살았다.
- ㄹ.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6ㄱ)과 (6ㄴ)의 ‘만’은 각각 조사와 의존명사이다. 그러나 그 원천적 의미 ‘의미 한정’이라는 점에서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와 의존명

---

7 격 배당자와 격 표시자는 앞서의 설명에서는 일률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격 배당자는 스스로 대상 명사구에 격을 줄 수 있는 동사와 같은 단어 혹은 접사를 의미하며, 격 표시자는 격 배당에 의해 해당 명사구에 나타나는 접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통 두 용어를 거의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로 분류되는 까닭은 분명치 않다. “나는 너만큼 일을 잘한다.”와 “나는 할 만큼 했다.”의 ‘만큼’과는 달리 (6ㄴ)의 ‘만’은 선행하는 요소가 항상 명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관형어 ‘할’도 일종의 명사로 보면 의존명사들도 거의 접사와 같은 양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조사 ‘만’은 접사와 단어의 양쪽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단어들과 대등하게 독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통사적으로 접사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철수는 일주일의 고민 만(N)에 문제를 풀 수 있었다.”와 “철수는 일주일의 고민만(Naff)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통사적으로도 동일한 구조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그 차이를 분명하게 밝힐 수 없다는 점도 (6ㄱ, ㄴ)의 동일한 기능을 지지해 준다.<sup>8</sup>

(6ㄷ)과 (6ㄹ)의 차이는 ‘만’과 ‘로’의 자리바꿈으로 의미가 달라진 경우이다. 이와 같이 격조사와 보조사의 자리바꿈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의미가 달라진다면 이는 접사의 서열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보통 접사의 서열성은 자기의 기능으로 인해 다른 접사들과 일정한 서열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ㄷ, ㄹ)의 비교 예는 적어도 부사격조사는 단어적 성격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예이다. 더구나 부사격조사는 동사로부터 격을 배당받는다 하더라도 각각의 격 표시자가 격의 고유한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격 표시자이면서 동시에 격 배당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사격은 영어의 여격과 같이 본유격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다.<sup>9</sup>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특정 요소가 단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면 단어로 보기 힘들다. 만약 어떤 요소 X가 단어라면 그것은 독립된 성분어로 선행 요소 Y와 자리

8 즉, 두 구문에서 ‘만’이 선행 명사와 띄어쓰기에 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준적 용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9 영어의 여격은 대명사의 굴절에서 대격과 구별되지 않고 여격동사에 의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스스로 격을 가지는 본유격으로 보고 있다.

를 바꿀 수 있거나 Y+X가 합성어가 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조사는 그렇지 못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 단어적 성격을 가지는 후치사들의 예를 보아도 그러하다. 그러나 특정한 후치사 ‘부터’, ‘조차’ 등은 역사적으로 동사 ‘붙다’, ‘쫓다’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다른 후치사들도 기원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단어적 성격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후치사는 접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행 명사구가 아니라면 독립적인 교점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치사의 연결에 있어서 접사가 가지는 일반적 서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의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조사는 접사 범주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치사는 다른 격조사들과는 달리 보다 단어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한 문법 요소를 단어와 접사로 이등분하는 분석은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후치사에 대한 좀 더 정밀한 관찰을 통해 후치사의 단어적 성격을 세밀히 드러냄으로써 한국어 조사의 전반적인 체계를 접사와 단어의 이원 체계가 아닌 자질 분류 방식의 정도성의 차이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조사는 어미에 대해 보다 단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조사가 단어이면서도 선행 명사에 붙어 쓴다는 현행 맞춤법 규정도 교육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중국어의 개사

중국어의 개사(介詞, co-verb)도 기능적으로는 한국어의 후치사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유형론적으로 중국어가 SOV 언어이고 명사에 선행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영어의 전치사와 분포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다. 즉, 중국어의

개사는 ‘개사+명사구’의 형태로 나타난다(찰스 리·샌드라 톰슨, 2009: 340).

(7) ㄱ. 我要跟他說話. (나는 그에게 말하러 한다.)

ㄴ. 你從哪兒來? (너는 어디에서 왔니?)

(7)의 예문은 찰스 리·샌드라 톰슨(2009: 341)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sup>10</sup> (7ㄱ)에서 ‘跟’은 후행 명사구와 결합하여 ‘그에게, 그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7ㄴ)도 ‘從’은 후행 명사구와 결합하여 ‘에서,로부터’의 뜻을 표현한다. 개사구는 보통 동사 앞에 온다. 그것은 통사구조를 염두에 둘 때 개사구가 부가어임을 나타낸다.<sup>11</sup> 즉 한국어의 후치사구와 중국어의 개사는 둘 다 명사구를 부사어로 만들어 기능하도록 한다.

중국어의 개사도 일부 한국어의 후치사와 같이 뚜렷하게 동사로부터 발전한 것이어서 현재도 동사로 사용이 가능하다.

(8) ㄱ. 李四在海邊. (이사는 해변에 있다.)

ㄴ. 爸爸給我錢.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었다.)

(8)의 예문에서 ‘在’와 ‘給’은 각각 동사로 사용되었다. 즉, 이 단어는 개사구에 사용될 때 개사가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한국어 후치사의 단어적 성격보다 더 단어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후치사의 단어적 성격은 어느 정도 의존적 용법에 한정되는 반면, 중국어의 개사는 동사 자체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사의 용법 또한 기원적인 성격이 강하다. 소림(2012: 예정)에

10 다른 중국어 예문들도 주로 이 책에서 가지고 왔다.

11 반면에 영어의 전치사구는 동사의 바깥쪽에 위치한다. 그 이유는 개사가 동사로부터 유래하여 개사구와 동사구가 복합 동사구를 이루는 형식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르면 개사 중 ‘朝’, ‘向’, ‘往’은 현재도 동사와 겸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원적으로도 동사로부터 발전해 온 것이다. 특히 ‘向’은 선진(先秦), 양진(兩漢) 시기에 ‘향하다, 직면하다, 가다, 경앙(景仰)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sup>12</sup>

(9) ㄱ. 今西伯昌, 人臣也, 修義而人向之 『韓非子』, 〈外儲說左下〉

(그럼에도 서백창은 신하에 불과한데, 바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인심이 그를 향하고 있다.)

ㄴ. 妒令潛配上陽宮 一生遂向空房宿 「白居易, 〈上陽白髮人〉」

(질투로 몰래 상양궁에 간혀, 일생을 공방으로 살았네.)

(9ㄱ)과 (9ㄴ)의 ‘向’은 각각 동사와 개사로 사용된 것이다. (9ㄴ)의 용법은 양진(兩晉), 남북조(南北朝) 시기에 정착된 것이다. 즉 개사의 용법은 역사적으로 동사로부터 기원하여 현재의 개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개사의 용법을 종합해 보면 중국어의 개사는 한국어의 후치사보다 단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어의 독립어적 특성에 의해 개사구를 이루는 명사구가 개사에 의해 특정한 격이 표시된다거나 개사구 자체가 특정한 격이 표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사의 하나로 인정되는 ‘把’는 “他 把書放下來了.(그는 책을 내려놓았다.)”와 같이 목적어 구문을 이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목적격 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개사구들은 부사격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다.<sup>13</sup> ‘把書’는 목적어의 강조적 용법으로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전치한다는 점에서 ‘把’ 자체가 특정 격에 관련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개사는 격 배당자라기보다는 개사에 의해 격 표시가 더 분명해졌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2 이에 관련된 예문은 소림(2012)에 의한 것이다.

13 ‘把’와 비슷한 용법을 가진 것으로 ‘將’을 들 수 있다.

## IV. 한국어의 후치사와 중국어 개사의 관련성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후치사와 중국어의 개사는 단어와 접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두 요소는 의미론적 기능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알면 이에 맞는 후치사를 대응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중세 한국어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sup>14</sup> 아래의 예들은 모두 『두시언해』 권14로부터 가지고 온 것이다.

(10) ㄱ. 從來多古意 (登兗州城樓)

네로브터 오매 넷일스랑흐논쁘디 하 잇노라

ㄴ. 送節向河源 (東樓)

부절가지 날 보내여河源으로 向흐넛다.

ㄷ. 諸孫賢至今 (送嚴侍郎到蘇州同登杜使君江樓宴得心字)

諸孫은 어디로미 이제 니르도다.

ㄹ. 江從灌口來 (野望因過常少仙)

ㄹㅅ문 灌口로셔조차 오넛다.

(10)의 예문들을 보면 중국어의 개사적 용법은 이미 중세 한국어에서 어느 정도 인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ㄴ)의 용법은 현대 한국어로서도 마찬가지로의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向屋子里走(방 안으로 간다.)”와 같은 표현이 이와 같다. 그러나 (10)의 예들, 특히 (10ㄴ, ㄷ)을 보면 당나라 시기만 해도 시간 표현에 대한 것은 개사적 용법보다는 동사적 용법이 우세하다

14 『두시언해』가 한문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세 한국어의 일반적인 모습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투의 문장도 중세 한국어의 직관에 맞았기 때문에 번역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두시언해』의 번역문도 중세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10ㄱ)에서 ‘從’은 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네’라는 명사를 붙여 가면서 ‘로부터’와 같은 후치사에 대응시켰다. 이는 (10ㄷ)의 ‘ჴ’가 완전히 동사로 대응된 것과 대조된다. 이는 시간부사가 ‘까지’와 같은 후치사의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ㄷ)의 ‘從’은 중국어의 개사가 한국어의 후치사 ‘로써조차’에 완전히 대응된 경우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후치사는 중국어의 개사 발전과 더불어 일정한 문법적 범주로 대응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중국어 개사의 단어적 성격은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중국어의 고립어적 속성으로 인해 개사가 격 표시자인지 격 배당자인지 가릴 수 있는 문법적 지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사에 의해 성립되는 개사구가 부사어로 기능하며, 또 한국어의 후치사구와 전통적으로 일정하게 그 기능과 의미에서 대응되는 양상을 볼 때 중국어의 개사는 접사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의 개사는 역사적으로 동사로부터 그 용법이 시작되었고, 현재에도 동사와 겸용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어의 개사는 단어적 성격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후치사도 조사가 구조격과 같이 격 표시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격 표시자로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구조격의 경우에도 한국어의 특성상 조사 자체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조사 ‘은’과 주격표지 ‘이’와의 대립을 보면 주격표지도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의 후치사 중에서 부사격에 해당하는 것들은 성분어가 모두 부

사어가 되기 때문에 부사격으로 통칭하고 그 의미 기능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그러나 ‘만’과 같은 후치사는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후치사를 동일한 기능으로 관찰하기 힘들게 한다. ‘조차’, ‘부터’와 같은 후치사도 “철수조차 오지 않았다.”에서는 주어로, “철수부터 조사해 보지.”에서는 목적어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상 이들은 대부분 부사어에서 실현되며, 역사적으로 중국어의 개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에’, ‘로’와 같은 부사격과 ‘만’과 같은 보조사는 서로 위치를 바꾸어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접사적 성격보다는 단어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하여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단어적 성격을 좀 더 나타내며 부사격과 다른 보조사들을 함께 묶을 수 있는 후치사라는 범주의 설정이 설명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어의 후치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적 연구는 양어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면모 어느 쪽으로 보나 앞으로 의미 있는 관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 주로 후치사와 개사의 단어적 성격과 그 역사적 발달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즉, 한/중 양어의 대조적 연구에 있어서도 유사성에 대한 논구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단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를 비교 혹은 대조 언어학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언어가 유형론과 계통론의 입장에서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교섭을 통해 특정한 문법 범주에서 유사성과 체계적 일관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한/중 양어를 서로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2.10.31. 투고되었으며, 2012.11.11. 심사가 시작되어 2012.11.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창수(2007), 『한국어의 접사 체계』, 한성대학교 출판부.
- \_\_\_\_\_(2012), 「단어란 무엇인가?」, 『한성어문학』 31, 한성어문학회, pp. 5~25.
- 김원경(2000), 『한국어 격 정보와 자질연산문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9), 『한국어의 격』, 박문사.
- 두보, 『분류두공부시언해』 14(영인본), 홍문각.
- 소림. 2012(예정), 『한국어 부사어와 중국어 개사구의 대조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수(1996),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국어학회, pp. 119~154.
- 찰스 리 · 샌드라 톰슨(1989), 박정국 외 옮김(2009), 『표준 중국어 문법』, 한울아카데미.
- Chomsky, N.(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Roderick A. Jacobs & Peter S. Rosenbaum,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Ginn, Waltham, Mass.

## 한국어 후치사와 중국어 개사의 단어적 성격에 대하여

고창수

한국어와 중국어는 유형론으로나 계통론으로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 언어이다. 그러나 두 언어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교섭해 왔기 때문에 어휘 면에서나 문법범주 면에서 공통성을 보이기도 한다. 어휘의 차용은 당연한 것으로 치더라도 문법범주들 간에 체계적 대응성은 앞으로 한/중 양어의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그 이유와 체계적 일관성을 더 궁구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한국어의 후치사는 중국어의 개사와 부사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응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후치사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 성격과 개사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 성격은 격 배당자나 격 표시자의 입장에서 다소 다르게 관찰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많은 동질성도 포함하고 있다. 같은 SVO 언어인 영어의 전치사는 개사와 같이 선택 요소로서 어구의 앞에 위치하지만, 중국어의 개사는 영어의 전치사와 달리 격 배당자로 볼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이것은 굴절어와 고립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언어 보편적 규칙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격 배당의 외현적 증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의 후치사구와 중국어의 개사구는 오히려 동질적 측면이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 대응성을 좀 더 깊이 연구한다면 한/중 양어를 서로 학습하려는 사람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심어 단어, 후치사, 전치사 개사, 격, 접사, 격 배당자, 격 표시자

## ABSTRACT

# On the note between the Postposition of Korean and the Co-verb of Chinese

Ko, Chang-soo

There are some meaningful similarity between Chinese co-verb and Korean postposition. The two device make ADVP out of NP by attaching itself to pre- or post- position. Because they was not case assigner nor case marker, they would not word nor affix. We can conclude they have two attribute. The attribute have some theoretical problem. It means we must have a certain dubious category. Although Korean and Chinese have developed typically different language, there are many negotiations historically with word bargain. Many Chinese co-verb has developed from verb to affix-like. Some Korean postposition as like it. In Middle age translation examples could show the events. Now we can see a little example. But the deeper and systemic understanding of the two device(co-verb and postposition), The similarity can make a meaningful and useful solution of the each language grammar studies.

**KEYWORDS** word, postposition, preposition, co-verb, case, affix, case-assigner, case-marker